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55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특 문학 현대소설 01 158~161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북쪽에 눈을 가지고서도, '유아독존' 식으로 날뛰는 절 사람들의 세도에 놀려 흘러오는 물조차 맘대로 못댄 곰보 고 서방은, 마침내 판은 큰맘을 먹고 자기 논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그러자 그걸 본 한 양반이 뺨 소리를 내지르며 쫓아왔다. 오더니 다짜고짜로,

㉠ "왜 또 손을 대요?"

"인제 물도 다 돼 가고 하니 나두 좀 대야지요."

하다가 고 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나 약한 것을 깨닫고 한마디 더 보태었다.

㉡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벌써 철철 넘고 있지 않소."

"뭘?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며 그는 곰보 논 물꼬를 봉하려고 들었다.

"안 돼요!"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논은 한 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랫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것은 너무 심하잖소?"

"무어-?"

"그렇게 노력하면 어쩔 테요?"

"야,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특특한 모양**이로군!"

그는 비쭉 냉소를 했다.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 해?"

"뭘가 어째? 야,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는군. 어디 상판 대기에 '빵꾸'를 좀 더 내 줄까?"

"이놈- 개 같은 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졌기로서니……."

"야, 이 녀석 좀 봐.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구? 하, 하, 하……."

그는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높이니,

"예끼 건방진 녀석!"

그리고 제보다 몸피가 훨씬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게 뭘 믿고서……."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자의 떡살을 불끈 줄라 쥐니깐,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 떼처럼 우- 몰려왔다. 그러자 아까 가동 늪은이를 상해 놓던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 짬을 콧 질렀다. 곰보는 악!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뺨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넋 잃은 사람처럼 논두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왼편 눈 밑이 퍼렇게 부어올랐다.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욱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

종일 수캐처럼 쫓아다닌 피로까지 엄습해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A] 그러나 한편, 물을 흐뭇이 댄 보광리-최근에 생긴 중 마을-사람들은 제 논 물이 행여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세라 돌우어 둔 물꼬와, 논두렁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고 서방은 분도 분이지만, 그보다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절 논 두 마지기**가 떨어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꿈같이 암담하였다.

(중략)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소위 저리 자금의-대부분은 비료 대금이지만-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 석에 대해서 너 되씩이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 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 대금은 값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하는 이사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을랑 귀 밖으로, 한참 '시끼시마*' 껍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 "그런 귀치않은 논은 부치지 않는 게 어때요?"

해 던졌다.

"……."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나두 인젠 그런 우는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치않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티어 들 보시구려!"

㉣ "누가 어디 조합 돈은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또쫓이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 보시오. 난 이 이상 더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적이 노기를 띠더니, 그들 틈에 끼어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서는,

㉤ "고 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다 내고서 또 무슨 낯으로 여기 오우?"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밑 고 서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 저기에**, 그에 **입도 차압*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다기보다, 꿈쩍없이 이젠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 서방은 드디어 야간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 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중일, 고 서방이 지어 두고 간 벼 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 깨어진 징 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 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 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 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쭤이, 들깨, 철한이, 봉구—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우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 댔다.

- 김정한, 「사하촌」

*주제소: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경찰의 말단 기관.

*시끼시마: 일본 담배 이름.

*입도 차압: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압류하는 일.

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특정 사건의 전말을 언급하고 있다.
- ③ 공간 이동에 따라 중심인물의 내면이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드러내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여 각각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동리 농민들은 조합에서 빌려 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
- ② 조합의 이사는 성동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소작료를 올리려 한다.
- ③ 고 서방은 함께 대화를 나누던 보광리 사람이 자신을 하대하고 냉소하자 울분을 표출한다.
- ④ 고 서방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주재소에 가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 여긴다.
- ⑤ 성동리 아낙네들은 보광사에서 남정들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한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거절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탁을 하러 온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30년대는 일제와 결탁한 지주 세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던 때로, 대다수 농민들은 다각적인 착취에 따른 굶주림과 토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하촌」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주 계층에 속한 보광리 주민들은 보광사의 소작인으로 구성된 성동리 주민들에게 소작료를 징수하고 경작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매개로 농민들을 수탈함으로써 수탈 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맞서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다.

- ① '밥줄이 제법 특특한 모양'이라면서 논 물꼬를 트는 고 서방을 협박하고 제지하려 하는 보광리 주민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성동리 주민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군.
- ②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 떼처럼' 고 서방에게 몰려든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소작인에게까지 소작료를 징수하려고 합세하는 보광리 주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고 서방이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절 논 두 마지기'를 잃을 것을 걱정한 이유는 보광리 주민들이 그 논에 경작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성동리 주민들의 하소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저기에' '입도 차압의 팻말이 붙'은 상황에서,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농민들을 수탈하던 지주 세력의 횡포가 드러나는군.
- ⑤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여들어 보광사로 향하는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를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